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5권 제1호(2012년 2월)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2;25(1):55-74
www.ood.or.kr
http://dx.doi.org/10.6114/jkood.2012.25.1.055

《傷寒論》, 《金匱要略》의 皮膚症狀 및 疾患에 대한 硏究

강나루 · 한정민 · 고우신 · 윤화정
동의대학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A Study on the Skin Disease of Sanghanron《傷寒論》and Geumgweyoryak《金匱要略》

Na-Ru Kang · Jung-Min Han · Woo-Shin Ko · Hwa-Jung Yoon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kin disease in Sanghanron《傷寒論》 and Geumgweyoryak《金匱要略》.

Methods : We conducted a study on the original text paragraphs of Sanghanron and Geumgweyoryak containing the skin disease and analysis of Woo, Oh, Sung, Zhang, etc. We drew a parallel between skin disease from Sanghanron and Geumgweyoryak and matching diagnoses from western medicine.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Sanghanron and Geumgweyoryak pruritus was related to psychogenic pruritus and similar to skin disease caused by decrease of sweating, dry skin in cholinergic urticaria, atopic dermatitis and eczema, etc. in western medicine.
2. In Geumgweyoryak ichthyosis was caused by woman's disease, after menopause, chronic disease and malnutrition and related to winter itch and xerotic eczema in western medicine.
3. In Sanghanron Goose bumps, keratosis follicularis, acute and chronic urticaria and cold urticaria were occurred because of poorly managed fever care and side effect of antibiotic.
4. In Geumgweyoryak red face was similar to face flushing and side effects, which is after drug and laser treatment on face, in western medicine.
5. In Geumgweyoryak urticaria was, in a broad sense, skin disease with pruritus and secondary infection resulted from scratch. Skin diseases with pruritus are similar to urticaria, dermatitis herpetiformis, lichen planus, atopic dermatitis, contact dermatitis, psoriasis, nummular eczema, lichen simplex chronicus, prurigo nodularis, neurodermatitis and internal disease with pruritus in western medicine.
6. In Geumgweyoryak spots in the skin were caused by fever and similar to allergic purpura and SLE symptom in western medicine.
7. In Geumgweyoryak bullous disease with yellowish discharge was similar to eczema, pustule, atopic eczema, etc. in western medicine.
8. In Geumgweyoryak repeated inflammation of oral cavity, genitals, eyes and skin was similar

to Behcet's disease in western medicine.
9. In Sanghanron and Geumgweyoryak boil was similar to abscess and acute lymphadenitis in western medicine caused by oily foods and infections.
10. In Geumgweyoryak swelling and boil were occurred in a poor health. Damage from metalic material could cause a convulsion and was similar to tetanus in western medicine.

Conclusion : We analyzed the original text paragraphs of Sanghanron and Geumgweyoryak and explanations about skin disease. As a results, we found out etiology, pathogenesis, treatments of the skin disease in Sanghanron and Geumgweyoryak. Further we compared with western medicine to develop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kin disease.

Key words : Sanghanron《傷寒論》, Geumgweyoryak《金匱要略》, skin disease

Ⅰ. 緖 論

피부는 항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들은 복잡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므로 진단이 어려우며, 같은 질환일지라도 주위 환경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치료가 어렵다[1].

윤 등[2]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중증도별 치료실태를 관찰한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현대의학으로 쉽게 치료되지 않는 피부질환들이 한방치료를 했을 때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토피와 같이 피부질환이 만성, 중증일수록 양방적인 치료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한방치료로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피부질환에 대한 한방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원인을 알기 어렵고 재발을 잘하는 아토피, 두드러기는 구 등[3], 이 등[4], 임 등[5]의 연구에서 보듯이 한방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보여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김 등[6], 탁 등[7], 홍 등[8] 의 논문에서 古方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한 치험례가 보고되고 있다. 古方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記載된 處方을 말하며,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後漢의 張仲景이 저술한 책으로 《傷寒論》은 傷寒이라고 부르는 急性熱性病의 症候와 治療法을 그 經過에 따라서 저술한 것이고, 《金匱要略》은 주로 慢性病의 症候와 治療法을 저술한 것이다[9].

《傷寒論》은 외감성 질환의 發生과 傳變 및 변증론치에 대해 六經分證에 따라 임상에 맞추어 쓴 古典으로 주로 執證, 脈診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舌診, 腹診을 병행함으로써 진단에 정밀을 기하였고, 상세한 증상을 근거로 病位, 病機를 판단하여 치법을 세우고 예후를 추측하여 병행되는 증상과 體質에 따라 변증하여 치료한다[10].

또한 《金匱要略》은 內科의 雜病에 대하여 辨證論治한 最古의 임상전문서로서, 60여종의 질병에 대한 病因, 病機와 證治, 200여 수의 方劑, 湯劑를 비롯한 丸 , 散, 酒劑 외에 熏, 坐, 洗, 敷 등의 外用 劑型, 藥餌 외에 鍼灸와 飮食調養 등의 치료수단, 약물의 炮製, 加減, 煎藥方法 및 服藥 후 反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理法方藥을 갖춘 이론과 임상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11].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피부질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질환의 원인, 증상, 피부색의 변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를 유추하여 피부질환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 및 腹診을 통해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

교신저자 : 윤화정,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산 45-1번지 동의의료원
(Tel : 051-850-8658, E-mail : yhj1226@deu.ac.kr)
• 접수 2012/1/10 • 수정 2012/2/6 • 채택 2012/2/13

라 생각되는 바, 이에 저자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記載된 古方을 통하여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考察하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皮膚疾患에 관련된 《傷寒論》, 《金匱要略》의 내용을 具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皮膚疾患을 분류하고 단락을 구분하여 校註를 달고 直譯, 講解, 考察을 하였다.

가. 《韓醫皮膚外科學》[12]의 분류에 따라 《傷寒論》, 《金匱要略》에 나타난 皮膚疾患, 皮膚의 症狀을 선별하였다.

나. 原文은 宋代의 林億 等이 校正하여 傳承된 宋本 《傷寒論》과 《金匱要略方論》에 準하였다.

다. 校註는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중 가장 適合하다고 인정되는 註를 金의 《現代傷寒論》[13], 傷寒論硏究會의 《傷寒論講義》[14], 江蘇省中醫大學 傷寒硏究室의 《傷寒論釋義》[15], 金의 《金匱要略辨釋》[11], 催의 《金匱要略釋講》[16], 郭의 《金匱要略譯解》[17]를 참고하여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를 달아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라. 直譯은 原文 解讀에 充實하도록 하였으며, 金의 《現代傷寒論》[13], 傷寒論硏究會의 《傷寒論講義》[14], 江蘇省中醫大學 傷寒硏究室의 《傷寒論釋義》[15], 金의 《金匱要略辨釋》[11], 催의 《金匱要略釋講》[16], 郭의 《金匱要略譯解》[17]를 참고하였다.

마. 考察은 校註, 直譯, 講解를 종합, 절충하여 《傷寒論》, 《金匱要略》에 나타난 皮膚疾患과 서양의학적인 疾患과의 연관성을 考察하였으며 皮膚疾患의 治療方法에 대한 임상적인 考察을 덧붙였다.

바. 本 文獻에 使用한 符號는 校註에 [ ], 引用文獻에 《》, 引用篇名에는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 ...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사. 本 論文의 硏究資料 및 文獻은 아래와 같다.

硏究資料

番號	著者	年代	書名	略字
1	成無己[18]	1127	注解傷寒論	成
2	尤在涇[19]	1810	傷寒貫珠集	尤
3	唐容川[20]	1875	傷寒論淺注補正	唐
4	程林[21]	1673	金匱要略直解	程
5	魏荔彤[22]	1720	金匱要略方論本義	魏
6	尤在涇[23]	1729	金匱要略心典	尤
7	吳謙[24]	1742	醫宗金鑒 · 訂正金匱要略注	吳
8	陳修園[25]	1803	金匱要略淺注	陳
9	丹波元堅[26]	1842	金匱玉函要略述義	丹波
10	張璐[27]	1695	張氏醫通	張

Ⅲ. 硏究內容

1. 皮膚의 症狀

1) 皮膚疾患의 症狀

(1) 瘡

① 《金匱要略》

【原文】

14-2. 脈浮而洪, 浮則爲風, 洪則爲氣, 風氣相搏, 風强則爲瘾疹, 身體爲瘡, 瘡爲泄風, 久爲痂癩[1] ….

【校註】

[1] 吳①는 "六腑의 脈이 浮洪한데, 浮한 것은 風을 의미하고 洪한 것은 水氣를 의미한다. 風과 水氣가

① 吳 : "六腑俱浮而洪, 浮則爲風, 洪則爲氣, 風氣相搏之病, 若風强于氣, 相搏爲病, 則偏于營, 故爲瘾疹, 身體爲痒, 痒則肌虛, 爲風邪外搏故也. 名曰泄風, 卽今之風燥瘡是也. 故日久不愈, 則成痂癩. 痂癩疥癬, 瘡癩之類是也. …" (《醫宗金鑒 · 訂正金匱要略注》, p.265.)

서로 부딪혀서 病이 되는 경우, 만약 風이 氣보다 강할 때 부딪히면 營分에서 偏盛하여 癮疹이 되고 신체가 가렵게 된다. 가려운 것은 肌肉이 虛한 것이니, 風邪가 外部에서 相搏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泄風이라 하며 곧 風燥로 인하여 瘡이 된 것이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痂癩가 된다. 痂癩, 疥癬은 癘癩의 종류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脈이 浮하고 洪하다면 浮한 것은 風이고, 洪한 것은 水氣를 의미한다. 風과 水氣가 서로 얽힐 경우, 風邪가 강하면 癮疹이 되어 신체에 소양감이 있으며, 소양증은 泄風이라 부르고, 癮疹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痂癩가 된다 ….

② 《傷寒論》

【原文】

23.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淸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脈微而惡寒,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更吐下也;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得小汗出, 身必癢[1], 宜桂枝麻黃各半湯.

【校註】

[1] 尤②는 "오히려 얼굴색에 熱氣가 있다면 邪氣가 表로 나가려고 하나, 땀이 조금도 나지 않아 邪氣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 몸이 가려운 것은 邪氣가 經筋을 攻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邪氣가 미약하여 皮膚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려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成③은 "陰陽이 모두 虛하면 얼굴색이 靑白할 것인데, 도리어 熱色이 있는 것은 表邪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熱色은 赤色이다. 이 때에 약간 땀을 내면 낫는데, 땀이 나지 않아서 邪氣가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여 瘙痒症이 생긴다. 桂枝麻黃各半湯으로 약간 땀이 나게 하면 表邪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直譯】

太陽病 8, 9일에 惡寒, 發熱하는 양상이 瘧疾과 같으며 發熱이 많고 惡寒이 적고, 嘔逆하지 않고 大小便도 정상이면서 하루에 2, 3번 발작하는 상황에서 脈象이 微緩하다면 곧 나으려는 것이고, 脈象이 微弱하면서 惡寒이 있으면 이것은 表裏가 모두 虛한 것이므로 汗法, 下法, 吐法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 얼굴에 紅色이 나타나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인데, 이는 조금이라도 땀을 내지 못한 탓이며 반드시 몸에 소양감이 있을 것이다. 桂枝麻黃各半湯으로 치료할 수 있다.

【考察】

《金櫃要略》 14-2조에서는 병의 초기에 風邪와 水氣가 서로 부딪히면서 소양증이 생기는 것으로 발작 시 증상이 격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癮疹, 痂癩 등 다른 피부 질환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소양증 이상의 피부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傷寒論》 23조에서는 병에 이환된 기간이 긴 상태에서 땀이 나지 않고 邪氣가 미약하게 남아 있어 桂枝麻黃各半湯으로 微發汗하여 치료하는 것이므로 소양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약하게 땀을 내어 치료하는 것으로 邪氣가 깊지 않고 表部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문에서 언급된 소양증은 風邪와 水氣가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으로 과민성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風瘙痒이다. 한의학에서 소양증이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風瘙痒의 범주에 속한다. 서양의학에서 심인성 가려움증에 속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고 스트레스

② 尤 : "… 若面色反有熱色者, 邪氣欲從表出, 而不得小汗, 則邪無從出, … 身痒者, 邪盛而攻走經筋則痛, 邪微而游行皮膚則痒也. …"(《傷寒貫珠集》, p.20.)

③ 成 : "… 陰陽俱虛, 則面靑, 反有熱色者, 表未解也, 熱色爲赤色也, 得小汗則和, 不得汗, 則不得邪氣外散皮膚而爲痒也, 與桂枝麻黃各半湯小發其汗, 以除表邪." (《注解傷寒論》, p.57.)

와 같은 정신적 긴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1].

《傷寒論》 23조에서 桂枝麻黃各半湯으로 微發汗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發汗法은 解表發汗의 약물로서 邪氣를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으로 外證을 消散시키는 治法이다. 邪氣도 風熱, 風寒의 邪氣로 구분되므로 治法도 辛凉, 辛溫의 구분을 둬서 약물을 사용한다. 소양증을 호소하는 질환 중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桂枝麻黃各半湯으로 微發汗시킬 수 있다. 발한 감소증을 동반한 콜린성 두드러기[28]나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소양증이 있는 아토피에 桂枝麻黃各半湯을 사용한 치험례[29]가 있으며 그 외에도 건조하면서 소양감을 호소하는 습진 등의 경우에 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肌膚甲錯

① 《金匱要略》

【原文】

6-18. 五勞虛極羸瘦, 腹滿不能飮食, 食傷 · 憂傷 · 飮傷 · 房室傷 · 飢傷 · 勞傷 · 經絡榮衛氣傷, 內有乾血, 肌膚甲錯[1], 兩目黯黑, 緩中補虛, 大黃䗪蟲丸主之.

【校註】

[1] 程④은 "七情, 飮食, 房勞로 인하여 正氣가 안으로 손상되고 血脈이 凝積되어 乾血이 생겨서 中焦에 쌓이면 신체가 여위게 된다. 血積하여 血이 凝滯되어 肌膚에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면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진다."고 하였다.

【直譯】

五勞로 인하여 몹시 허약하여 신체가 여위고 배가 더부룩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暴食, 지나친 걱정, 暴飮, 성생활 과다, 지나친 小食, 지나친 노동으로 인하여 經絡과 營分, 衛分의 기가 손상되어 안으로 乾血이 생기기 때문인데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지고, 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緩中補虛의 방법으로 大黃䗪蟲丸으로 치료해야 한다.

【原文】

14-29. 黃汗之病,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食已汗出, 又身常暮盜汗出者, 此榮氣也. 若汗出已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 若身重, 汗出已輒輕者, 久久必身瞤, 瞤卽胸中痛, 又從腰以上汗出, 下無汗, 腰髖弛痛, 如有物在皮中狀, 劇者不能食, 身疼重, 煩躁, 小便不利, 此爲黃汗, 桂枝加黃芪湯主之[1].

【校註】

[1] 張⑤은 "黃汗은 榮氣不和로 虛한 틈을 타서 水氣가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데, 發熱出汗, 身體重痛, 皮膚甲錯, 肌肉瞤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瘀熱이 凝滯되면 甲錯이 나타나는데 피부가 물고기 비늘과 같이 되고 發熱이 그치지 않으면 瘀熱이 肌肉을 부패시켜 惡瘡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尤⑥는 "黃汗은 鬱證으로서 땀이 나면 外部로 도달하는 기전이 있는데, 만약 땀이 나고 도리어 發熱이 생긴다면 이는 熱과 汗이 모두 밖으로 나온 것이므로 오래되면 肌膚甲錯이나 혹은 惡瘡이 생기니, 이른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왕성하다는 것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直譯】

黃汗의 病은 양 정강이가 冷한데, 만약 發熱하면 歷節風에 속한다. 밥을 먹고 나서 땀이 나고

④ 程 : "夫人或因七情, 或因飮食, 或因房勞, 皆令正氣內傷, 血脈凝積, 致有乾血, 積于中, 而虛羸見于外也. 血積則不能以濡肌膚, 故肌膚甲錯, …" (《金匱要略直解》)

⑤ 張 : "黃汗皆由榮氣不和, 水氣乘虛襲入, 所以有發熱出汗, 身體重痛, 皮膚甲錯, 肌肉瞤動等證. 至于脛冷髖弛, 腰下無汗, 內經所謂身半以下, 濕中之也. 脈沈遲者, 水濕之氣滲于經脈, 而顯遲滯不行之狀, 證雖多岐, 觀其所治, 咸以桂芍和榮散邪, 卽兼黃芪司開闔之權, 社邪氣0入之路也, 按仲景于瘀熱壅滯之候, 每云甲錯, 卽肌若魚鱗之狀, 故發熱不止, 則瘀熱潰腐而僞惡瘡. …" (《張氏醫通》, p.120.)

⑥ 尤 : "… 然黃汗鬱證也, 汗出則有外達之機, 若汗出已反發熱者, 是熱與汗俱出于外, 久而肌膚甲錯, 或生惡瘡, 所謂自內之外而盛于外也. …" (《金匱要略心典》, pp.103-4.)

또 밤에 항상 식은땀이 나는 것은 勞氣이다. 땀이 난 뒤에 도리어 發熱하는 것이 오래되면 몸의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지는데, … 심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무거우며 煩躁하고 小便不利가 있는데 이것은 黃汗病으로 桂枝加黃芪湯을 쓴다.

【原文】

18-3. 腸癰之爲病, 其身甲錯[1], 腹皮急, 按之濡, 如腫狀,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此爲腸內有癰, 薏苡附子敗醬散主之.

【校註】

[1] 尤⑦는 "甲錯이란, 피부가 건조해져서 일어나는 것으로, 비늘 모양의 딱딱한 껍질이 뒤얽힌 것인데, 營氣가 속에서 鬱滯되어 바깥으로 血燥한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濡養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腸癰의 병은 그 피부가 나무껍질과 같이 거칠어지고 복부의 피부는 당기나 눌러보면 유연하여 부은 것과 같고 뱃속에 적취가 없으며 몸에 열이 없으면서 맥이 삭한 것은 腸內에 腸癰이 있는 것이니 薏苡附子敗醬散을 쓴다.

(3) 肌若魚鱗

① 《金匱要略》

【原文】

22-8. 婦人之病, 因虛 · 積冷 · 結氣, 爲諸經水斷絶, 至有歷年, 血寒積結, 胞門寒傷, 經絡凝堅. 在上嘔吐涎唾, 久成肺癰, 形體損分. 在中盤結, 繞臍寒疝; 或兩脇疼痛, 與臟相速; 或結熱中, 痛在關元, 脈數無瘡, 肌若魚鱗, 時着男子, 非止女身. 在下未多, 經候不勻, 令陰掣痛, 少腹惡寒; 或引腰脊, 下根氣衝, 氣衝急痛. 膝脛疼煩, 奄忽眩冒, 狀如厥癲; 或有憂慘, 悲傷多嗔, 此皆帶下, 非有魂神. 久則羸瘦, 脈虛多寒; 三十六病, 千變萬端; 番脈陰陽, 虛實緊弦; 行氣針藥, 治危得安; 其雖同病, 脈各異源; 子當辨記, 勿謂不然….

【直譯】

부인의 병은 氣虛, 積冷, 結氣에 의해 생기는데, 이로 인해 각종 月經病을 일으키며 閉經이 되기로 한다. 오래되어 血分에 寒邪가 적결되어 胞宮이 寒邪에 손상되어 經絡이 凝結되는 것이다.

병이 上焦에 있으면 嘔吐涎沫 증상이 나타나고 오래되면 肺癰을 형성하여 형체가 마르게 된다. 병이 中焦에 있으면 배꼽 주변으로 寒疝이 있는데 兩脇이 疼痛하며 아픔이 五臟에까지 미친다. 寒邪가 熱이 되어 中焦에 結集하면 關元部에 疼痛이 있고 脈이 數하나 瘡瘍은 없으며 피부가 고기비늘처럼 건조해서 주름이 생긴다. 남자에게도 발생하며 반드시 부인만이 이런 종류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

【考察】

위 조문에서는 肌膚甲錯과 肌若魚鱗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肌膚甲錯의 세 조문은 공통적으로 내부의 營血이 凝滯되어 乾血이 생겨 피부가 영향을 받지 못해 생긴다고 하였으며, 肌若魚鱗은 증상은 肌膚甲錯과 유사하지만 婦人病의 病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甲錯은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진다고 하여 서양의학에서의 비늘증(Ichthyosis)과 유사한데, 주로 전두부, 몸통 및 사지의 폄쪽면에 병변이 발생하고, 미세한 비늘이 전신을 덮고 있으며 피부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편이고 계절적으로 춥고 건조한 시기에 악화된다[1]. 또한 건조한 피부에 생기는 건조습진도 인설을 보이는 점에서 유사한데, 건조습진은 특히 정강이, 팔의 폄쪽, 옆구리와 손등에 잘 발생하며 습도가 낮은 환절기나 겨울에 잘 발생한다[30]. 노년층에 호발하며, 건조증은 노년층에

⑦ 尤 : "甲錯, 肌皮乾起, 如鱗甲之交錯, 由營滯于中, 枯血燥于外也. …" (《金匱要略心典》, p.135.)

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1].

肌若魚鱗은 肌膚甲錯과 유사하나 22-8조에서 婦人雜病의 證候 중 서술되었으며, 虛, 積冷, 結氣의 원인이 中焦에 있어 邪熱로 인해 營血이 耗損하고 乾血이 內結하여 肌膚를 滋養하지 못하므로 피부가 건조하여 고기비늘처럼 주름이 생기게 된다. 虛, 積冷, 結氣 세 가지가 모두 經水不利를 일으킬 수 있으며 "至有歷年, 血寒積結, 胞門寒傷, 經絡凝堅"는 부인이 이러한 원인으로 經水斷絶이 된 病機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인설을 보이는 질환 중 婦人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겨울가려움증(winter itch)과 유사한데, 겨울가려움증은 70세 이상 노인의 약 50% 이상에서 발생하며 여성의 경우 폐경후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1].

6-18조에서 大黃䗪蟲丸은 처방 중의 大黃, 䗪蟲, 水蛭, 虻蟲, 乾漆, 桃仁은 活血化瘀하고, 芍藥, 乾地黃은 養陰益血하며, 白蜜, 甘草는 健脾益氣하고, 黃芩은 淸熱하며 杏仁은 理氣한다. 본방에는 비록 瘀血을 제거하는 약물이 많지만 꿀로 丸을 빚음으로써 이들 약물들의 강한 성질을 완화시킨다. 또한 益氣滋陰하는 약물을 배합하며 虛를 補함으로써 瘀血을 제거하되 正氣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緩中補虛하는 처방이다[17]. 五勞, 虛極, 羸瘦한 허약한 상태인 虛勞에 瘀血을 겸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설, 건조증이 발생할 때에 응용해 볼 수 있다.

14-29조에서는 桂枝加黃芪湯을 사용하였는데, 黃芪는 대체로 피부에 濕이 있을 때 사용하지만, 이 조문에서는 반대로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慢性의 病으로 예를 들어 수술 후에 여위고 피부에 윤기가 없는 상태일 때 桂枝加黃芪湯이나 十全大補湯 등의 黃芪가 들어간 處方을 사용한다. 또한 身體에 水氣가 있어서 무겁고, 아픈 것이 마치 피부 속에 벌레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정상의 知覺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黃芪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30]. 따라서 만성 질환 및 영양부족으로 인해 甲錯이 생기는 경우 桂枝加黃芪湯을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3조에서는 腸癰病을 앓아서 營血이 오랫동안 울결되어 전신의 肌膚를 滋養하지 못하므로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이 때에 薏苡附子敗醬散을 사용하여 排膿消癰하고 陽氣를 북돋아야 하며, 처방 중의 薏苡仁, 敗醬은 排膿解毒하고, 附子는 陽氣를 북돋는다고 하였다[17].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이미 陰證의 상태에 빠져 患者가 허약한 상태이며, 피부가 건조하고 인설이 일어날 때 薏苡附子敗醬散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肉上粟起

① 《傷寒論》

【原文】

141. 病在陽, 應以汗解之, 反以冷水潠之, 若灌之, 其熱被劫不得去, 彌更益煩, 肉上粟起, 意欲飮水, 反不渴者, 服文蛤散. 若不差者, 與五苓散.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小陷胸湯, 白散亦可服.

【直譯】

병이 太陽에 있으면 汗法으로 이를 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냉수를 내뿜거나 씻는 방법을 써서 그 邪熱이 찬물로 인해 풀리지 않고, 心煩이 더욱 심해지며, 肌肉에는 좁쌀 모양의 돌기가 생기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하나 갈증은 없는 것에는 文蛤散을 사용한다. 낫지 않으면 五苓散을 준다. 만약 寒實結胸이 되어 熱證이 없으면 三物白散을 준다.

【考察】

본 조문은 肉上粟起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찬물을 뿌려서 解熱하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여 陽熱이 냉수에 被鬱되고 외부에 寒凝이 되어 皮毛와 腠理가 收斂된 때문이므로 肌膚에 좁쌀과 같은 돌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피부에 좁쌀과 같은 돌기가 생기는 것은 현대적

으로 닭살과 비슷하며, 외부에 寒凝이 되어 皮毛와 腠理가 收斂되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모공각화증과 유사하다.

모공각화증은 모낭 안에 박힌 각질마개(Keratin plug) 때문에 피부가 닭살 모양으로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이다. 보통염색체우성 유전하며 작은 회색의 모낭성 구진이 팔, 허벅지, 어깨 등의 외측부에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와 팔꿈치 아래에도 보이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토피성인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1].

또한 肉上粟起는 열을 식히려고 찬물을 뿌린 誤治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서양의학에서 잘못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두드러기 및 피부질환과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두드러기는 벌레에 물렸을 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팽진이 특징적인데, 피부가 몹시 가려우며 경계가 명확하게 홍색 또는 흰색으로 부풀어오른다. 이러한 팽진은 혈관반응으로 인하여 피부의 진피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종에 의한 것이다[1].

급성두드러기 및 만성 두드러기는 항생제 약물 등에 포함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원에 반응하여 발생할 수 있어[1] 誤治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肉上粟起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랭 두드러기는 보통 추위에 노출된 후 몸이 다시 더워질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30] 찬물에 노출 된 후 피부에 肉上粟起가 발생한 점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치료는 文蛤散, 五苓散, 三物白散을 사용하였는데, 文蛤은 性味가 鹹寒한데 鹹味가 腎에 작용해 水氣를 勝하게 하고 利小便시켜 表部의 水氣를 分利시키고 寒性은 鬱遏된 熱을 배설시켜 煩渴을 그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文蛤散은 發熱, 無汗, 口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모공각화증이 있을 때 응용해 볼 수 있다. 또한 文蛤散을 복용하여 치유되지 않으면 口渴을 膀胱氣化의 不利로 인한 것으로 보아 五苓散으로 化氣利水시키면서 解表시킬 수 있다고 보아, 口渴과 小便不利의 증상이 함께 있을 때 응용할 수 있다. 三物白散은 寒實結胸으로 痰水와 寒이 相結하여 發熱, 煩渴, 舌苔黃燥 등의 熱證은 나타나지 않으며 實證에 해당하고 氣喘, 咳逆, 大便不通 등의 實證이 나타날 수 있다. 心下가 硬滿, 疼痛하며 痰水와 寒이 相結하여 닭살 및 모공각화증이 나타날 때 三物白散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斑

① 《金匱要略》

【原文】

3-14. 陽毒之爲病,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1], 五日可治. 七日不可治, 升麻鱉甲湯主之.

【校註】

[1] 尤⑧는 "毒이란 邪氣가 쌓여서 풀리지 않은 것을 이른다. 비단 무늬처럼 斑疹이 돋아 얼굴이 붉고, 咽喉痛, 膿血을 토하는 것 등 그 邪氣가 드러나면서 表에 있는 것을 陽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直譯】

陽毒이라는 병은 얼굴에 비단처럼 빛깔이 고운 무늬의 붉은 반점이 생기고, 咽喉痛이 있으며 농이 섞인 피를 토한다. 이 병은 발병 후 5일 이내라면 치료할 수 있으나 7일이 지난 것은 치료하지 못한다. 升麻鱉甲湯으로 이를 치료한다.

【考察】

陽毒은 얼굴에 비단 무늬 같은 斑塊가 있고 咽喉痛이 있으며 膿血을 뱉는 특징이 있다. 이는 疫毒邪氣가 營分을 손상시킨 것으로 병이 裏 중의 表에 편중된 경우이다. 熱이 營血을 핍박하여 외부로 밀어내는 까닭에 비단 무늬 같은 얼굴에 붉은

⑧ 尤 : "毒者, 邪氣蘊蓄不解之謂. 陽毒非必極熱, 陰毒非必極寒, 邪在陽者爲陽毒, 邪在陰者爲陰毒也. 而此所謂陰陽者, 亦非臟腑氣血之謂, 但以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其邪著而在表者謂之陽. …" (《金匱要略心典》, p.26.)

색 斑塊가 발생한다. 서양의학에서 붉은색의 斑塊가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레르기성 紫斑과 홍반성 루푸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紫斑은 적혈구의 혈관 밖 유출로 인한 피부나 점막의 출혈을 뜻한다. 국소적인 혈관확장으로 인해 유발되는 홍반과는 달리 병변을 압박하였을 때 사라지지 않고, 피부와 점막에 점출혈과 반상 출혈이 나타나는데 내부 장기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다[1].

한의학에서는 外感風熱의 邪氣가 肌表에 侵入해 血分에 積滯되고 血熱이 妄行하여 발생하거나 濕熱, 脾腎不足으로 運化기능이 失調되어 血이 脈外로 넘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12].

홍반성 루푸스는 만성 경과를 취하는 자가면역결합조직병으로 신체 대부분의 장기를 침범하며 20-40세의 여성에서 다발하고 과로, 임신, 약물과민 등이 발병의 중요 유발인자로 임상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병정이 비교적 길며 반복해서 발생한다[1].

陽毒은 얼굴에 비단 무늬 같은 斑塊가 있는데 疫毒邪氣가 營分을 손상시킨 것으로 병이 裏중의 表에 편중된 경우라고 하였으며, 이는 홍반루푸스의 분류 중 내부 장기를 침범하지 않고 피부에 국한되며 비교적 양성의 경과를 취하는 급성피부홍반루푸스, 원반모양 홍반성 루푸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급성 피부형, 원반모양 홍반성 루푸스는 홍반루푸스환자의 20-60%에서 관찰되며 나비모양 발진이나 뺨의 발진으로 콧등과 뺨에 홍반이 대칭적으로 발생한다[1].

한의학에서는 紅蝴蝶이라고 하며 陰虛內熱型, 氣滯血瘀型, 熱毒熾盛型이 있으며 그 중 熱毒熾盛型은 발병이 신속하고 고열이 지속되며 피부에 홍반 및 瘀斑이 나타나고 吐血, 衄血, 便血, 紫斑 등이 보일 수 있다[12]. 熱毒熾盛型이 陽毒의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증상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알레르기성 紫斑 및 홍반성루푸스가 아니더라도 안면부의 紅斑과 함께 熱證을 보이는 질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升麻鱉甲湯 처방 중의 升麻와 甘草는 淸熱解毒하므로 疫毒邪氣를 제거하고, 鱉甲과 當歸는 滋陰行血하여 血中의 瘀滯를 제거한다. 陽毒은 病位가 裏 중의 表에 있으므로 蜀椒와 雄黃의 辛散하는 성질을 빌어 疫毒邪氣를 몰아내며[17], 알레르기성 紫斑 및 홍반성루푸스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皮膚色의 變化

(1) 面翕熱如醉狀

① 《金匱要略》

【原文】

12-36. 靑龍湯下已, 多唾口燥, 寸脈沈, 尺脈微, 手足厥逆, 氣從小腹上衝胸咽, 手足痺, 其面翕熱如醉狀[1], 因復下流陰股, 小便難, 時復冒者, 與茯苓桂枝五味甘草湯, 治其氣衝.

【校註】

[1] 尤⑨는 "小靑龍湯을 복용한 후 만약 그 사람이 下焦가 實하고 虛하지 않다면 邪氣가 풀리고 病이 제거되겠지만, 만약 虛하다면 비록 麻黃, 細辛 등 辛甘溫散한 약들이 外邪를 發越할 수 있지만 사람의 衝氣까지도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吳⑩는 "小靑龍湯은 辛溫大散하여 陽을 상하게 하여 手足厥逆이 생기며, 陰陽이 모두 상하여 陽을 잡아 줄 수 없어 陽이 밖으로 浮하여 얼굴이 술에 취한 듯 달아오르게 된다."고 하였다.

【直譯】

小靑龍湯을 복용한 다음, 가래나 침을 많이 뱉

⑨ 尤 : "服靑龍湯已, 設其人下實不虛, 則邪解而病除, 若虛則痲黃, 細辛辛甘溫散之品, 雖能發越外邪, 亦易動人衝氣. 衝氣, 衝脈之氣也. 衝脈起于下焦, 挾腎脈上行至喉嚨. 多睡口燥, 氣衝胸咽, 面熱如醉, 皆衝氣上入之候也. …" (《金匱要略心典》, p.84.)

⑩ 吳 : "小靑龍湯辛溫大散, 惟有餘之人宜之, 若誤施于不足之人, 辛熱則傷陰, 故多睡口燥也; 大散則傷陽, 故手足厥逆也; 面熱如醉, 陽外浮也. …" (《醫宗金鑒 · 訂正金匱要略注》, p.256-7.)

어내고 입안이 마르고 寸脈이 沈하며 尺脈이 微弱하며, 手足이 厥冷하고 아랫배부터 가슴, 인후로 氣가 치밀어 오르고 手足이 저리고, 안색은 술을 마신 것 같이 뜨겁고 또 붉어진다. 氣가 다시 배에서 허벅지로 흘러내려가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때때로 현기증이 나는 것은 茯苓桂枝五味甘草湯으로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치료해야 한다.

【原文】

12-40. 若面熱如醉, 此爲胃熱上衝熏其面, 加大黃以利之[1].

【校註】

[1] 尤⑪는 "衝脈의 上行으로 얼굴이 술을 마신 것처럼 붉어지는 것과는 다른데, 衝脈이 上行한 경우는 病이 下焦의 陰중에 陽熱이 있는 것으로 酸溫한 약으로 치료하지만, 이 경우는 中焦의 陽明에 陽이 있는 것으로 苦寒한 약으로 瀉下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陳⑫은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은 것은, 篇 중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 조문은 衝氣로 인한 것이고, 病이 下焦에서 發하는 것이다. 肺氣不利하여 外에서 滯하면 形腫이 생기고, 內에서 滯하면 胃熱이 上行한다. 杏仁으로 胸中之氣를 소통시키고, 大黃으로 胃中之熱을 瀉下하면 된다."고 하였다.

【直譯】

만약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뜨거우면 胃熱이 上衝하여 얼굴을 熏蒸하는 것이므로 大黃을 넣어 胃熱을 瀉下해야 한다.

【考察】

위 조문은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어지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두 조문 모두 나타나는 증상은 같으나 病機의 차이가 있는데 12-36조문은 辛甘溫散한 약물이 陰陽을 俱傷하게 하여 虛陽이 浮越하여 얼굴이 붉어진 것이고, 12-40조문은 胃中의 燥火가 太過하고 積熱이 上衝한 것이다.

위 조문의 증상은 현대적으로 홍조증과 유사하며 홍조는 일과성으로 얼굴이나 목, 상흉부 등에 발생되는 홍반으로 압박으로 쉽게 소멸된다. 특히 안면홍조와 유사한데, 일시적인 혈관확장으로 발생하며 자율신경이나 혈관활성물질에 의한 혈관평활근의 작용이 주된 기전이다[1].

위 두 條文에서 胃熱에 의한 홍조는 陽明의 특성상 汗出, 渴, 小便數而大便硬한 양상과 얼굴 전체가 붉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小靑龍湯 服用後 나타난 面翕熱如醉狀은 裏證이 있었을 것임에도 發汗法으로 誤治함으로써 나타난 陰陽俱虛의 敗證이며 이는 面赤⑬이 나타나는 少陰病과 面少赤⑭이 나타나는 厥陰病과 유사하며 陽虛를 基本으로 하기에 無汗, 不渴, 下利, 手足厥冷, 觀紅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小靑龍湯 服用後 上逆으로 인해 나타난 홍조 및 苓甘五味加薑辛半杏湯을 복용 한 후 胃熱로 인해 나타난 홍조는 약의 작용이 過하여 발생한 것으로 안면홍조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약물 및 레이저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홍조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치료는 茯苓桂枝五味甘草湯을 사용하였는데, 처

⑪ 尤 : "水飮有挾陰之寒者, 亦有挾陽之熱者, 若面熱如醉, 則胃熱隨經上衝之證, 胃之脈上行于面故也. 則于消飮藥中加大黃以下其熱. 與衝氣上逆, 其面翕熱如醉者不同. 衝氣上行者, 病屬下焦陰中之陽, 故以散溫止之; 此屬中焦陽陰之陽, 故以苦寒下之." (《金匱要略心典》, p.86.)

⑫ 陳 : "面熱如醉, 篇中兩見 , 而義各不同. 前因冲氣, 病發于下. 此不過肺氣不利, 滯于外而形腫, 滯于內而胃熱, 但以杏仁利其胸中之氣, 大黃利其胃中之熱, 則得耳." (《金匱要略淺注》)

⑬ 少陰病, 下利淸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絶, 身反不惡寒,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 (全國韓醫科大學, 앞의 책, 2005:p.536.)

⑭ 下利, 脈沈而遲, 其人面少赤, 身有微熱, 下利淸穀者, 必鬱冒汗出而解, 病人必微厥, 所以然者, 其面戴陽, 下虛故也. (全國韓醫科大學, 앞의 책, 2005:p.620.)

방 중의 桂枝, 甘草는 辛甘한 성미로써 陽을 化生하여 衝逆한 氣를 가라앉히고, 茯苓은 上逆한 氣를 下行토록 하며, 五味子는 흩어진 氣를 수렴하여 陽氣가 上部로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17]. 面熱如醉는 胃腸에 염증이 있어서 그 熱로 얼굴이 붉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消炎작용이 있는 大黃으로 瀉下시킨다[31].

안면홍조나 약물,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홍조 부작용의 양상을 구분하여 上氣로 인한 홍조에는 茯苓桂枝五味甘草湯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胃腸의 염증으로 인해 홍조가 있는 경우에 본 조문에서는 苓甘五味加薑辛半杏湯에 大黃을 加하였지만,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처방을 고려하여 大黃을 加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皮膚疾患과 관련된 病名

1) 皮膚科 疾患

(1) 癮疹, 痂癩

① 《金匱要略》

【原文】

14-2. 脈浮而洪, 浮則爲風, 洪則爲氣, 風氣相搏, 風强則爲癮疹, 身體爲瘙, 瘙爲泄風, 久爲痂癩[1] ….

【校註】

[1] 吳⑮는 "六腑의 脈이 浮洪한데, 浮한 것은 風을 의미하고 洪한 것은 水氣를 의미한다. 風과 水氣가 서로 부딪혀서 病이 되는 경우, 만약 風이 氣보다 강할 때 부딪히면 營分에서 偏盛하여 癮疹이 되고 신체가 가렵게 된다. 가려운 것은 肌肉이 虛한 것이니, 風邪가 外部에서 相搏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泄風이라 하며 곧 風燥로 인하여 瘡이 된 것이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痂癩가 된다. 痂癩, 疥癬은 癘癩의 종류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脈이 浮하고 洪하다면 浮한 것은 風이고, 洪한 것은 水氣를 의미한다. 風과 水氣가 서로 얽힐 경우, 風邪가 강하면 癮疹이 되어 신체에 소양감이 있으며, 소양증은 泄風이라 부르고, 癮疹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痂癩가 된다 ….

【考察】

본 조문은 風邪가 강하면 癮疹이 되어 신체에 소양감이 있으며, 소양증은 泄風이라 부르고, 癮疹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痂癩가 된다고 하였다. 吳謙은 "泄風이라 하며 곧 風燥로 인하여 瘡이 된 것이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痂癩가 된다. 痂癩, 疥癬은 癘癩의 종류이다."라고 하였다.

소양증을 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肌肉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아 泄風이라고 하였으며, 가려운 것이 계속 심하면 긁어서 낫지 않아 瘡이 된 것과 같이 보이고, 癮疹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化膿하여 딱지가 앉은 것으로 마치 문둥병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痂癩가 된다[17]고 하였다.

癮疹으로 소양증이 생기며 癮疹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계속 긁어서 상처가 생겨 痂癩가 된다고 한 것으로 유추해 보아 癮疹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으로 의미를 넓혀 생각해 볼 수 있고, 痂癩를 가려움증으로 인해 긁고 난 후 발생하는 이차적인 감염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癮疹과 같이 소양증을 주로 호소하는 피부질환은 서양의학적으로 두드러기, 포진피부염, 편평태선, 아토피피부염, 접촉 피부염, 건선, 화폐상 습진, 만성단순태선, 결절성 양진, 신경피부염 등이 있고[32], 내과질환에 동반되는 소양증으로는 담즙가려움증, 만성신부전증, 악성종양, 철 결핍빈혈, 진

⑮ 吳 : "六腑俱浮而洪, 浮則爲風, 洪則爲氣, 風氣相搏之病, 若風强于氣, 相搏爲病, 則偏于營, 故爲癮疹, 身體爲痒, 痒則肌虛, 爲風邪外搏故也. 名曰泄風, 卽今之風燥瘡是也. 故曰久不愈, 則成痂癩. 痂癩疥癬, 癘癩之類是也. …" (《醫宗金鑒 · 訂正金匱要略注》, p.265.)

성 적혈구 증가증,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 당뇨병, 후천면역결핍증[1] 등이 있다. 또한 痂癩는 가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2차 감염으로 볼 수 있는데, 膿痂疹이나 膿疱瘡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浸淫瘡

① 《金匱要略》

【原文】

18-7. 浸淫瘡, 從口流向四肢者, 可治; 從四肢流來入口者, 不可治[1].

【校註】

[1] 尤⑯는 〈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 "浸淫瘡은 瘡이 계속해서 퍼지는 병으로, 《外臺秘要》에서 말한 "점차 넓게 퍼져 汁이 나오고 온몸으로 흘러 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直譯】

浸淫瘡이 입 주변에서 팔다리로 번져가는 것은 치료할 수 있고, 팔다리에서 입으로 번지는 것은 치료할 수 없다.

【原文】

18-8. 浸淫瘡, 黃連粉主之[1].

【校註】

[1] 尤⑰는 "黃連粉 처방은 나오지 않지만, 그 大意는 浸淫瘡은 濕熱이 浸淫한 것이므로 黃連 一味로 가루내어 이를 뿌리니, 寒性으로 除熱하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浸淫瘡에는 黃連粉을 쓴다.

【考察】

浸淫瘡은 濕熱의 火毒이 肌膚를 熏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병의 초기에는 범위가 작고 열감과 가려움이 있으며 긁으면 작은 수포가 일어난다. 黃色의 분비물이 다른 피부를 적시고 점차 퍼져서 전신에 이르게 되므로 이름을 浸淫瘡이라고 하였다.

이는 서양의학의 濕疹, 膿疱瘡 등의 水疱性 疾患 및 진물이 나는 습진형 아토피 질환과 유사한데 이 중 膿疱瘡은 콩에서 좁쌀 크기의 홍반 혹은 수포가 일어나며 초기에 疱液은 투명하나 후에 혼탁해지며 급속히 膿疱로 변하며 수포의 주위는 紅暈하며 쉽게 파열되고, 파열된 후 홍색으로 糜爛, 濕潤하며 黃水가 흐르고 딱지가 진다[12].

濕疹은 瘙痒, 紅斑, 鱗屑과 군집된 丘疹, 水疱를 보이고, 조직학적으로는 표재성 피부염으로서 표피에는 해면화를 동반하고 진피에는 혈관 주변에 염증세포가 침윤된 염증성 피부 반응을 보이는 피부질환군을 총칭하는 것이다. 아토피는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가려움을 동반하는 만성재발성 습진 질환으로 급성기에는 가려움증이 심한 홍반성 구진과 수포가 발생하며 긁으면 삼출성 병변이 발생하여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난다[1].

濕疹, 膿疱瘡 등의 질환이 濕熱火毒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黃連粉으로 瀉心火, 解毒燥濕하여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狐惑病

① 《金匱要略》

【原文】

3-10. 狐惑之爲病, 狀如傷寒, 默默欲眠, 目不得閉, 臥起不安, 蝕於喉爲惑, 蝕於陰爲狐, 不欲飮食, 惡聞食臭, 其面目乍赤乍黑乍白, 蝕於上部則聲嗄, 甘草瀉心湯主之[1].

【校註】

[1] 尤⑱는 "蟲病이지만 사람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⑯ 尤 : "浸淫瘡, 瘡之浸淫不已, 《外臺》所謂專廣有汁, 流繞周身者也. 從口流向四肢者, 病自內而之外, 故可治; 從四肢流來入口者, 病自外而之裏, 故不可治.(金匱要略心典-臟腑經絡先後病脈證)" (《金匱要略心典》, pp.7-8.)

⑰ 尤 : "黃連粉方未見, 大意以此爲濕熱浸淫之病, 故取黃連一味爲粉粉之, 苦以燥濕, 寒以除熱也." (《金匱要略心典》, p.137.)

⑱ 尤 : "… 蓋雖蟲病, 而能使人惑亂而狐疑, 故名曰狐惑. … 蝕于上部, 卽蝕于喉之謂, 故聲嗄. 蝕于下部, 卽蝕于陰之謂, 陰內屬于肝,

하는 것이 여우에게 홀린 것과 같기에 '狐惑'이라고 命名했다. … 上部가 짓무르는 것은 喉部가 짓무른 것을 의미하며 목이 잠기게 된다. 下部가 짓무르는 것은 陰部가 짓무른 것을 말하는데, 陰部는 안으로 肝에 속하고, 咽門은 肝膽의 候가 되므로 病이 아래로부터 위로 上衝하면 咽乾이 된다."고 하였다.

【直譯】

狐惑病은 傷寒과 비슷하나 말없이 잠만 자려고 하나 눈을 감고 편안히 쉴 수 없으며, 누우나 일어나나 편하지 않다. 咽喉部가 허는 것은 惑이고 前陰, 後陰部가 허는 것은 狐이다.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음식 냄새를 맡기도 싫어하며 얼굴이 붉거나 검거나 희게 되며, 咽喉部가 짓무르면서 목소리가 쉬게 되는데 甘草瀉心湯을 쓴다.

【原文】

3-13. 病者脈數, 無熱, 微煩, 默默但欲臥, 汗出, 初得之三四日, 目赤如鴆眼; 七八日, 目內眥黑. 若能食者, 膿已成也, 赤小豆當歸散主之[1].

【校註】

[1] 尤⑲는 "濕熱이 쌓여 생긴 毒으로 인한 病으로 썩지 않고 蟲이 된 경우는 쌓여서 癰이 되고, 그것이 몸과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면 腸과 臟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병의 자연스러운 기세이다."고 하였다.

【直譯】

환자가 脈數하나 熱이 없고, 약간의 煩證이 있으나 말없이 자꾸 눕고 싶어 하고 땀을 흘리며 3, 4일 지나면 눈이 비둘기 눈처럼 붉게 되고 7, 8일 지나면 눈초리가 검어진다. 만약 음식을 먹으면 膿이 이미 형성된 것이니 赤小豆當歸散으로 치료한다.

【考察】

狐惑病은 현대의학의 베체트병과 유사한데, 베체트병은 반복적인 구강궤양, 외음부 궤양, 피부증상과 전방축농성 홍채염을 특징으로 하며 구강병변은 단독 또는 다수가 함께 생기기도 하며 크기는 2-10㎜ 정도이다[30]. 성기의 병변은 남자에서 음낭, 음경, 요도부위에, 여자인 경우 외음부, 자궁경부, 질 등에 나타나며 항문, 서혜부, 직장 등에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피부증상으로는 다양성을 보여 결절 홍반, 다형 홍반양 발진, 좌창양 농포성 구진 등이 나타난다. 눈의 병변은 극심한 안와부의 동통과 수명(photophobia)으로 시작되어 결막염, 포도막염, 홍채 모양체염이 자주 발생된다[1].

《金櫃要略》 3-10조와 같이 '蝕於上部則聲嗄'는 베체트병의 구순, 혀, 구강점막, 연구개, 경구개, 편도, 인후나 비강에 궤양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므로 상기 증상에 甘草瀉心湯을 응용할 수 있다.

狐惑病의 변증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風溫濕熱上蘊型은 재발성 口腔粘膜潰瘍의 증상이 제일 현저하고, 肝脾濕熱下注型은 外生殖器의 潰瘍이 주증상이고 전신적으로는 午後低熱, 頭脹痛, 神疲乏力, 納呆腹脹 등의 증상이 있으며, 肝脾腎三陰虧損型은 병이 오래되어 低熱의 起伏이 있으며 腰膝痠軟, 口苦咽乾, 月經不調하며 益氣養血, 滋補肝腎하는 治法을 사용한다[12]. 甘草瀉心湯은 처방 중의 黃連, 黃芩이 瀉心熱, 淸熱解毒의 기능이 있어 風溫濕熱上蘊型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咽喉部, 口腔, 顔面部의 피부질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金櫃要略》 3-13조에서의 증상은 베체트병의 결막염, 포도막염, 홍채 모양체염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內外眥가 검어지는 것은 충혈의 정도가 심해져 膿이 성숙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이런

而咽門爲肝胆之候, 病自下而衝上, 則咽乾也. …" (《金匱要略心典》, p.25.)

⑲ 尤 : "… 濕熱蘊毒之病, 其不腐而爲蟲者, 則積而爲癰. 不發于身面者, 則發于腸臟,, 亦病機自然之勢也." (《金匱要略心典》, pp.25-6.)

경우 赤小豆當歸散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外科 疾患

(1) 癰, 癰膿, 癰腫

① 《金匱要略》

【原文】

18-1. 諸脈浮數, 法當發熱, 而反洒淅惡寒, 若有痛處, 當發其癰.

【直譯】

무릇 脈이 浮數하면 열이 나야 하는데 도리어 오싹오싹 惡寒이 들면서 몸에 疼痛 부위가 있다면 이것은 瘡癰이 생길 조짐이다.

【原文】

14-1. 師曰: 病有風水, 有皮水, 有正水, 有石水, 有黃汗. … 黃汗, 其脈沈遲, 身發熱, 胸滿, 四肢頭面腫, 久不愈, 必致癰膿[1].

【校註】

[1] 尤⑳는 "濕熱이 上部에서 旺盛하여 陽氣가 不行하면 身熱, 胸滿, 四肢頭面腫이 생기고 오래되면 裏에 이르러 營氣를 不通하게 하므로 肉理에 거스르게 되어 癰膿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魏①는 "濕이 皮毛에 침입하면 發熱이 나면서 熱이 上炎하여 胸滿頭面腫이 나타나고 濕熱로 인해 四肢도 붓게 된다. 오래되어 낫지 않으면 癰膿을 형성하는데, 濕이 盛하면 熱이 이를 따라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瘀熱로 인해 瘡癰이 생기면 潰爛하여 膿이 형성되는 것이 반드시 그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水氣病에는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汗이 있다. … 黃汗은 脈象이 沈遲하며 몸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四肢와 頭面이 부어서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반드시 癰膿이 생긴다.

【原文】

18-2. 師曰: 諸癰腫, 欲知有膿無膿, 以手掩腫上, 熱者爲有膿, 不熱者爲無膿[1].

【校註】

[1] 尤②는 "癰腫의 증후는 膿이 생기지 않으면 毒이 풀리지 않고, 毒이 모이지 않으면 膿은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으로 癰腫의 위를 가볍게 덮어보아 熱이 있는 것은 毒이 이미 모였으니 膿이 있고, 熱이 나지 않으면 毒이 모이지 않은 것이니 膿이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直譯】

모든 癰腫에 있어서 고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손으로 종기 윗부분을 덮어보아 열이 나면 고름이 있는 것이고, 열이 나지 않으면 고름이 없는 것이다.

② 《傷寒論》

【原文】

332. 傷寒始發熱六日, 厥反九日而利, … 本發熱六日, 厥反九日, 復發熱三日, 幷前六日, 亦爲九日, 與厥相應, 故期之旦日夜半愈. 後三日脈之, 而脈數, 其熱不罷者, 此爲熱氣有餘, 必發癰膿也.

【直譯】

傷寒 초기에 發熱이 6일 동안 있고 厥冷이 9일 동안 지속되며 下利를 하였다. … 이는 본래 發熱이 6일 있었고 厥冷이 9일 있었는데, 다시 發熱이

---

⑳ 尤 : "… 黃汗, 汗出霑衣如柏汁, 得之濕熱交病, 而濕居熱外, 其盛于上而陽不行, 則身熱胸滿, 四肢頭面腫, 久則侵及于裏而營不通, 則逆于肉理而爲癰膿也." (《金匱要略心典》, pp.92-3.)

① 魏 : "黃汗者, 其脈亦沈遲, 如正水石水, 水邪在內無異也. 然所感之濕, 客于皮毛者, 獨盛于他證, 故身發熱, 熱必上炎, 故胸滿頭面腫, 濕熱肆行, 故四肢亦腫, 久久不愈, 且成癰膿, 皆濕盛而熱隨之留戀不去, 瘀隆蘊釀, 致成瘡癰, 潰爛成膿, 必致之勢也. …" (《金匱要略方論本義》, p.189.)

② 尤 : "浮·數脈皆陽也, 陽當發熱, 而反洒淅惡寒者, 衛氣有所遏而不出也. 夫衛主行營氣者也, 而營過實者, 反能阻遏其衛. 若有痛處, 則榮之實者已兆, 故曰當發其癰. 癰腫之候, 膿不成則毒不化, 而毒不聚則膿必不成. 故以手掩其腫上, 熱者毒已聚, 則有膿; 不熱者毒不聚, 則無膿也." (《金匱要略心典》, pp.134-5.)

3일 있다면 앞의 6일을 더하면 역시 9일이 되어 厥冷한 날짜와 같이 되므로 내일 밤이 되면 마땅히 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3일이 지나 재진할 때 脈이 數하고 發熱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陽熱이 지나친 것으로 반드시 癰腫이 발생할 것이다.

【原文】

376. 嘔家有癰膿者, 不可治嘔, 膿盡自愈[1].

【校註】

[1] 尤③는 "癰膿은 傷寒病에 熱이 胃口에 모여 不行하면 癰腫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膿은 嘔吐를 따라 나오니 癰이 낫지 않으면 嘔吐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直譯】

內部에 癰膿이 있어서 嘔吐하는 경우는 嘔吐를 치료하는 것이 옳지 않다. 膿이 다하면 嘔吐는 저절로 그칠 것이다.

【考察】

癰은 3~4寸 정도의 크기로 쉽게 화농되어 터지면서도 또한 쉽게 유합되는 급성 瘡瘍을 가리키며 局部의 腫脹, 發赤, 熱感, 疼痛이 나타나는 것이 瘡瘍類의 가장 큰 특징이다. 癰은 크게 內癰과 外癰으로 나누는데, 內癰은 臟腑에 생기는 것이고, 外癰은 體表에 發生하는 것이며[12] 18-1조에서의 증상은 內癰 및 外癰에 모두 해당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癰의 발생 원인은 크게 濕熱과 火熱의 毒으로 나눌 수 있다. 濕熱에는 膏梁厚味를 과다하게 섭취하여 안으로 濕熱火毒이 쌓여 營衛不和하고 邪熱壅聚하여 氣血이 凝聚되어 발생하는 경우와 六淫邪毒에 접촉하여 肌表가 鬱滯되어 癰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또한 癰의 形成은 火熱의 毒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六淫의 邪氣가 化熱하고 肌肉을 腐爛하여 膿을 형성하며, 飮食不節 및 膏梁厚味를 過多 攝取하면 化熱, 化火하여 癰腫을 형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12].

이는 癰膿으로 인해 嘔吐가 발생하는 경우로 外癰보다는 內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外癰의 경우도 惡寒, 發熱, 口渴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嘔吐와 같은 胃腸障碍를 일으키는 경우는 적으며 尤在涇은 "熱이 胃口에 모여 不行하여 癰腫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熱이 肌表에 凝滯되어 발생하는 外癰보다는 熱이 內部臟腑에 모여 발생하는 內癰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金匱要略》 18-2조에서는 癰腫의 有膿과 無膿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술하였다. 이는 癰의 成膿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疼痛이 아주 극심하고 그 부위를 누르면 膿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體力이 충분한 사람은 쉽게 膿이 생기고, 虛弱한 사람은 化膿時期가 비교적 느리다[12].

한방적으로는 膏梁厚味의 飮食不節 및 外感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의학의 음식과 감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종기 및 급성임파선염과 유사하다.

임파선염은 임파선이 비대해지거나 임파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증상이며 대부분 양성이거나 일시적인 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임파선이 비대해져서 종괴가 만져지거나, 감염증에 의한 임파선염의 경우에는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괴를 덮고 있는 피부에 발적이 동반될 수 있다[30].

종기는 모낭에서 기원한 심재성의 염증성 결절이며 대부분 모낭염에서 진행되고, 심해질 경우 고름집(농양)으로 발전한다. 큰 종기는 여러 개의 종기가 융합되어 염증성 병변이 커지고 깊어지면서

③ 尤 : "癰膿者, 傷寒熱聚於胃口而不行, 則生腫癰, 而膿從嘔出, 癰不已, 則嘔不止, 是因癰膿而嘔, 故不可概以止嘔之藥治之. 膿盡癰已, 則嘔自之. …" (《傷寒貫珠集》, p.175.)

화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온찜질을 해주면 병변이 쉽게 화농된 후 배출되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1].

(2) 惡瘡

① 《金匱要略》

【原文】

14-29. 黃汗之病, 兩脛自冷; 假冷發熱, 此屬歷節. 食已汗出, 又身常暮盜汗出者, 此榮氣也. 若汗出已反發熱者, 久久其身必甲錯; 發熱不止者, 必生惡瘡[1]. 若身重, 汗出已輒輕者, 久久必身瞤, 瞤卽胸中痛, 又從腰以上汗出, 下無汗, 腰髖弛痛, 如有物在皮中狀, 劇者不能食, 身疼重, 煩躁, 小便不利, 此爲黃汗, 桂枝加黃芪湯主之.

【校註】

[1] 張④은 "瘀熱이 凝滯되면 甲錯이 나타나는데 피부가 물고기 비늘과 같이 되고 發熱이 그치지 않으면 瘀熱이 肌肉을 부패시켜 惡瘡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尤⑤는 "黃汗은 鬱證으로서 땀이 나면 外部로 도달하는 기전이 있는데, 만약 땀이 나고 도리어 發熱이 생긴다면 이는 熱과 汗이 모두 밖으로 나온 것이므로 오래되면 肌膚甲錯이나 혹은 惡瘡이 생기니, 이른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왕성하다는 것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直譯】

黃汗의 病은 양 정강이가 冷한데, 만약 發熱하면 歷節風에 속한다. 밥을 먹고 나서 땀이 나고 또 밤에 항상 식은땀이 나는 것은 勞氣이다. 땀이 난 뒤에 도리어 發熱하는 것이 오래되면 몸의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지는데, 만약 發熱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惡瘡이 생긴다. 만약 몸이 무겁다가도 땀이 난 다음에 금세 가벼운 느낌이 드는 사람은 그것이 오래 되면 반드시 몸이 떨리고, 몸이 떨리면 흉부가 아프고 허리 위쪽으로만 땀이 나며 아래쪽은 땀이 나지 않고 허리와 엉덩이가 힘이 없고 아픈 것이 마치 피부 속에 벌레가 있는 것과 같다. 심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무거우며 煩躁하고 小便不利가 있는데 이것은 黃汗病으로 桂枝加黃芪湯을 쓴다.

(3) 瘡

① 《金匱要略》

【原文】

2-6. 瘡家雖身疼痛, 不可發汗, 汗出則痙[1].

【校註】

[1] 尤⑥는 "이것은 본래 痙病의 원인인데, 이 세 가지 경우는 다르지만, 液을 脫하고 津을 상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太陽病의 風寒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寒濕을 거듭 感受하여 생기는 痙病이 있고, 血을 잃고 氣가 고갈되어 陰陽을 손상하여 痙病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吳⑦는 "瘡家의 초기에 毒熱이 왕성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汗法을 써야 한다. 궤양이 생긴 이후에는 血이 이미 傷하면 身痛表證이 있더라도 汗法을 써서는 안 된다. 汗出하여 血液이 고갈되면 筋이 영양을 받지 못하여 痙病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直譯】

瘡瘍이 오래된 사람은 비록 表證의 身疼痛 증상

④ 張 : "黃汗皆由榮氣不和, 水氣乘虛襲入, 所以有發熱出汗, 身體重痛, 皮膚甲錯, 肌肉瞤動等證. 至于脛冷髖弛, 腰下無汗, 內經所謂身半以下, 濕中之也. 脈沈遲者, 水濕之氣滲于經脈, 而顯遲滯不行之狀, 證雖多岐, 觀其所治, 咸以桂芍和榮散邪, 卽兼黃芪司開闔之權, 祛邪氣0入之路也, 按仲景于瘀熱壅滯之候, 每云甲錯, 卽肌若魚鱗之狀, 故發熱不止, 則瘀熱潰腐而僞惡瘡. 每言身瞤乃經脈動惕之兆, 故發汗不已, 則榮氣內乏, 而胸中痛也."(《張氏醫通》, p.120.)

⑤ 尤 : "… 然黃汗鬱證也, 汗出則有外達之機, 若汗出已反發熱者, 是熱與汗俱出于外, 久而肌膚甲錯, 或生惡瘡, 所謂自內之外而盛于外也. …" (《金匱要略心典》, pp.103-4.)

⑥ 尤 : "此原痙病之由, 有此三者之異. 其爲脫液傷津則一也. 蓋病有太陽風寒不解, 重感寒濕而成痙者; 亦有亡血竭氣, 損傷陰陽, 而病變成痙者. …" (《金匱要略心典》, p.11.)

⑦ 吳 : "瘡家初起, 毒熱未成, 法堂汗散. 已經潰後, 血已被傷, 雖有身痛表證, 亦不可發汗, 恐汗出血液愈竭, 筋失所養, 因而成痙, …" (《醫宗金鑒》, p.211.)

이 있더라도 發汗法을 쓸 수 없으며, 잘못하여 發汗하면 痙病을 유발할 수 있다.

【原文】

2-10. 痙病有灸瘡, 難治[1].

【校註】

[1] 尤⑧는 "뜸으로 인한 상처가 있으면 膿血이 오랫동안 나오고 상처부위가 닫히지 않는다. 樓全善은 "이것은 곧 破傷風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두 陰이 손상되어 風熱을 이기지 못하고 陽 또한 손상받아 攻伐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直譯】

痙病에 뜸을 떠서 瘡瘍이 있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原文】

18-5. 問曰: 寸口脈浮微而澁, 法當亡血, 若汗出. 設不汗者云何? 答曰: 若身有瘡, 被刀斧所傷, 亡血故也[1].

【校註】

[1] 尤⑨는 "땀이 나지 않으면서 몸에 瘡傷이 있으니 칼이나 도끼에 의해 손상되어 그 血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丹波⑩는 "瘡이라고 하는 것은 金瘡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寸口脈이 浮微하면서 澁하다면 亡血이거나 汗出로 인한 것이다. 汗出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답하여 말하기를, 몸에 瘡瘍이 있거나 칼이나 도끼로 상처를 입어서 亡血하였기 때문이다.

【原文】

18-6. 病金瘡, 王不留行散主之[1].

【校註】

[1] 尤⑪는 "金瘡이란 쇠칼에 손상을 받아 瘡이 생긴 것으로 經脈이 끊어지고, 營衛가 가로막힌 것이니, 이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經脈을 다시 소통시켜, 營衛가 서로 통하여야 瘡이 낫는다. 王不留行散은 氣血을 운행하고 陰陽을 調和하는 훌륭한 처방이다."라고 하였다.

【直譯】

金瘡에는 王不留行散을 쓴다.

【原文】

22-21. 少陰脈滑而數者, 陰中卽生瘡, 陰中蝕瘡爛者, 狼牙湯洗之[1].

【校註】

[1] 尤⑫는 "脈滑은 濕이고, 脈數은 熱이다. 濕熱이 서로 합쳐져서 少飮이 이어지면 陰中에 瘡이 생기고, 심하면 헐고 짓무름이 계속된다. 狼牙는 味가 酸苦하여 邪熱로 인한 疥癬, 惡瘡을 없애고 白蟲을 제거하므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에 取하였다."고 하였다. 吳⑬는 "陰中이란 곧 前陰이다. 生瘡蝕爛이란 濕熱不潔하여 生齧한 것이다. 狼牙湯으로 씻으면 濕熱이 제거되고, 殺齧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다.

【直譯】

少陰脈이 滑數한 것은 陰部에 瘡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陰部에 종기가 나서 헐고 문드러진 데는 狼牙湯으로 씻어야 한다.

---

⑧ 尤 : "病灸瘡者, 膿血久潰, 穴兪不閉. 樓全善云: 卽破傷風之意. 皆陰傷不勝風熱, 陽傷而不任攻伐也, 故曰難治." (《金匱要略心典》, p.12.)

⑨ 尤 : "… 玆不汗出而身有瘡, 卽知其被刀斧所傷而亡其血, …" (《金匱要略心典》, p.136.)

⑩ 丹波 : "… 又瘡, 古作創, 卽金瘡之義也. …" (《金匱玉函要略述義》, p.919.)

⑪ 尤 : "金瘡, 金刃所傷而成瘡者, 經脈斬絶, 營衛沮弛, 治之者必使經脈復行, 營衛相貫而後已. 王不留行散,卽行氣血和陰陽之良劑也." (《金匱要略心典》, p.136.)

⑫ 尤 : "脈滑者濕也, 脈數者熱也, 濕熱相合, 而系在少陰, 故陰中卽生瘡, 甚則蝕爛不已. 狼牙味酸苦, 除邪熱氣, 疥癬惡瘡, 去白蟲, 故取治是病." (《金匱要略心典》, p.158.)

⑬ 吳 : "陰中, 卽前陰也. 生瘡蝕爛, 乃濕熱不潔而生齧也. 用狼牙湯洗之, 以除濕熱殺齧也." (《醫宗金鑒 · 訂正金匱要略注》, p.295.)

【考察】

瘡瘍의 발생 원인은 外感인 六淫邪毒, 外來傷害 등이 있고, 內傷에는 情志內傷, 飮食不節, 房室損傷 등이 있다. 風, 寒, 暑, 濕 등으로 발생한 瘡瘍에서는 처음에는 모두 火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점차 紅腫熱痛의 火熱現狀이 나타난다. 또한 內傷으로 발생하는 瘡瘍은 邪實하기도 하지만 正氣가 먼저 虛하기 때문에 虛損病으로 慢性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外邪로 인한 것보다 증상이 重하다[12]. 14-29조에서와 같이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효과적인 치료가 하지 못하면 化火, 腐肉하고 膿이 만들어져서 膿腫이 形成된다. 만약 失治하거나 誤治하면 正氣가 약해지고 瘡毒이 走散하여 走黃과 內陷의 위급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처방으로는 桂枝加黃芪湯을 사용하였는데 桂枝湯에 黃芪를 加하여 肌膚를 充實하게 하면 陽氣가 肌膚에 왕성하여 衛氣는 자연히 안으로 이르고 腠理는 固密해져 瘀水가 정체하지 못하여 小便이 淸하게 되어 모든 증상이 소실된다[9]. 桂枝加黃芪湯은 虛損病으로 慢性的인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金匱要略》 2-6조에서는 瘡家의 초기에 身疼痛이 外感風寒이나 風熱表證과 같은 증상을 나타낼 때에는 發汗하여 낫게 할 수 있지만, 瘡瘍이 오래된 경우에 氣血津液이 이미 손상된 상태일 때는 發汗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身疼痛의 한 가지 증상만 보고 약을 써서는 안 되고 瘡瘍의 후기에는 補法을 사용하여 正氣를 회복하게 하고 瘡口를 아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匱要略》 2-10조에서는 瘡瘍이 있을 때 痙攣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外傷의 감염 후에 內風이 動하여 특징적으로 筋肉에 경련과 긴장성 수축을 일으키는 급성질환인 破傷風을 의미한다. 開放性 創傷으로 腠理不密한데 風邪가 乘虛以入, 由表入裏하여 邪가 經絡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臟腑에 들어가 발병하며, 潰瘍에 外治가 부당하거나 失治하여 熱이 鬱閉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金匱要略》 18-5조와 18-6조에서는 칼이나 도끼 등의 금속기계에 상처를 입은 경우도 瘡瘍에 속함을 설명하였으며 王不留行散을 환부에 발라서 치료하는 粉劑의 慰敷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外治法의 粉劑는 吸收, 蒸發, 乾燥, 止痒하는 작용이 있으며, 滲出液이 없는 급성 혹은 아급성 피부염에 사용하며 매일 3~5회 환부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한다[12].

처방 중의 王不留行은 金瘡의 출혈을 멎게 하고, 蒴藋는 氣血을 잘 통하게 하며, 桑白皮는 生肌止血한다. 黃芩, 芍藥은 淸熱解毒, 斂陰止血하고, 川椒, 乾薑, 厚朴은 理血行滯, 通調血脈하며 甘草는 和中生肌解毒한다. 국소의 손상이 비교적 작을 경우는 분말한 것을 환부에 바르면 止血定痛할 수 있다. 만약 손상이 비교적 커서 출혈이 많을 경우는 內服을 위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17].

삼출물이 많지 않고, 상처가 작은 경우의 瘡瘍은 王不留行散, 靑黛散 등의 粉劑를 사용하여 止血, 鎭痛 효과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匱要略》 22-21조에서 尤在涇은 "濕熱이 서로 합쳐져서 少陰이 이어지면 陰中에 瘡이 생기고, 심하면 헐고 짓무름이 계속된다."고 하였다. 濕은 아래로 流注하여 下焦에서 瘡瘍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에는 洗法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洗法은 消炎, 止痒, 乾燥의 작용이 있으며 斑, 丘疹, 水泡, 膿疱, 삼출액이 적은 糜爛 등에 적용할 수 있다[12]. 狼牙湯은 狼牙草를 달인 물로 濕熱邪가 前陰部에 몰려 오래되어 陰中이 가렵고 아프면서 짓무르며, 탁한 帶下가 방울방울 떨어질 때 陰中을 씻어준다[17].

前陰, 後陰部와 같은 濕熱이 凝聚되어 瘡瘍이 생기는 곳은 狼牙湯, 三黃洗劑, 靑黛散洗劑 등을 사용하여 祛濕淸熱, 止痒작용에 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Ⅳ. 結 論

피부질환과 관련된 《傷寒論》, 《金匱要略》의 내용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風邪와 水氣가 서로 부딪혀 소양증이 생기는 것은 서양의학에서 심인성 가려움증과 유사하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하며 이로 인해 소양증이 생기는 경우는 발한감소증을 동반한 콜린성 두드러기,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소양증이 있는 아토피, 습진 등의 피부질환과 유사하다.
2. 《金匱要略》에서 肌膚甲錯은 만성질환, 영양부족으로 營血이 凝滯되어 乾血이 생겨 피부가 영양을 받지 못해 생기는데 유전질환인 비늘증, 건조습진과 유사하다. 또한 肌若魚鱗은 肌膚甲錯과 유사하지만 婦人病의 病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 서양의학에서 폐경후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겨울가려움증과 유사하다.
3. 《傷寒論》에서 肉上粟起는 찬물을 뿌려서 解熱하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여 肌膚에 좁쌀과 같은 돌기가 생긴 것으로 서양의학의 닭살, 모낭각화증,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및 만성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와 유사하다.
4. 《金匱要略》에서 面翕熱如醉狀은 안면홍조와 약물 및 레이저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홍조 부작용과 유사하다.
5. 《金匱要略》에서 癮疹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질환으로 의미를 넓혀 생각해 볼 수 있고, 痂癩는 가려움증으로 긁고 난 후의 이차감염과 유사하다. 소양증이 주가 되는 질환인 두드러기, 포진피부염, 편평태선, 아토피피부염, 접촉 피부염, 건선, 화폐상 습진, 만성단순태선, 결절성 양진, 신경피부염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내과적인 질환들이 癮疹의 포괄적인 의미에 해당하며, 痂癩는 감염질환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6. 《金匱要略》에서 面赤斑斑如錦紋은 熱이 營血을 외부로 밀어내어 생기는 것으로, 서양의학에서 알레르기성 紫斑, 홍반성 루푸스와 유사하다.
7. 《金匱要略》에서 浸淫瘡은 황색 분비물이 나오며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것으로 서양의학의 濕疹, 膿疱瘡 등의 水疱性 疾患, 습진형 아토피와 유사하다.
8. 《金匱要略》에서 狐惑病은 구강, 생식기, 눈, 피부에 반복적인 염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서양의학의 베체트병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9.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癰, 癰膿, 癰腫은 서양의학의 음식과 감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종기 및 급성임파선염과 유사하다.
10. 《金匱要略》에서 惡瘡은 正氣가 쇠약해진 경우에 생기기 쉬우며, 금속기계로 인해 손상되어 경련이 생기는 것은 서양의학의 破傷風과 유사하다.

參 考 文 獻

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서울:여문각. 2008:1, 96, 97, 98, 112-3, 124-5, 165-6, 170-3, 188-9, 220, 235, 236, 298, 510, 530-2, 587-9.
2. 윤영희, 최인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중증도별 치료실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9;22(1):172-80.

3. 구영희, 최인화.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험 3례. 2002;15(1):140-50.
4. 이길영, 김혜정. 만성두드러기에 대한 임상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81-6.
5. 임미경, 송정모. 태음인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치험 1례. 사상체질의학회지. 2008;20(3):190-8.
6. 김환영, 성은진, 윤채성, 윤철, 안민섭, 김훈영, 조은희, 박민철. 古方과 舍岩鍼을 이용한 염증성 여드름 치험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3):226-34.
7. 탁명림, 김미보, 변석미, 윤화정, 고우신. 古方으로 치료한 두드러기 환자 39례의 臨床報告.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9;22(3):196-207.
8. 홍성민, 허인희,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상한론 처방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1례 보고. 2007;20(2):230-9.
9. 李載熙. 도설 한방진료요방. 서울:의방출판사. 2004:27, 126-7.
10. 문준전, 안규석, 김성훈, 엄현섭, 지규용, 김정범. 傷寒論精解.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6:34-42.
11. 金楨汜. 金匱要略辨釋. 서울:한의문화사. 2000:1-2, 334-5.
12. 전국 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韓醫皮膚外科學. 부산:선우출판사. 2007:29, 139, 153-5, 346-7, 363-5, 396, 419-21, 458-9, 465-6, 471-6, 523.
13. 全國韓醫科大學. 現代傷寒論. 서울:한의문화사. 2005:319-20, 325, 328, 346, 350, 395, 536, 620.
14. 傷寒論硏究會. 傷寒論講義. 서울:도서출판정담. 1997.
15. 江蘇省中醫大學 傷寒硏究室. 傷寒論釋義. 民族醫學硏究所 古典硏究室. 서울:여강출판사. 2001.
16. 최달영, 김준기, 염용하. 金匱要略釋講.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17. 郭東烈. 金匱要略譯解. 서울:성보사 부설 전통의학연구소. 2002:98, 158, 308, 451, 455-6, 526.
18. 成無已. 注解傷寒論. 北京:人民衛生出版局. 1127:57, 95, 124-5.
19. 尤在涇. 傷寒貫珠集.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810:20, 119, 175.
20. 唐容川. 傷寒論淺注補正. 臺南:綜合出版社. 1875.
21. 程林. 金匱要略直解. 1673.
22.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人民衛生出版局. 1720:189.
23. 尤在涇. 金匱要略心典. 北京:中國中醫藥. 1729:7-8, 11-2, 25-6, 84, 86, 92-3, 103-4, 110-4, 134-7, 158.
24. 吳謙. 醫宗金鑒 · 訂正金匱要略注. 北京:人民衛生出版局. 1742:211, 256-7, 265, 269-73, 295.
25. 陳修園. 金匱要略淺注. 1803.
26. 丹波元堅. 金匱玉函要略述義. 北京:人民衛生出版局. 1842:919.
27. 張璐. 張氏醫通.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695:120.
28. 김규석, 김윤범.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응용한 후천성 발한감소증을 동반한 특발성 콜린성 두드러기 치험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9;2(3):220-7.
29. 이정구, 김형준. 桂枝麻黃各半湯의 아토피 患者 臨床治驗 證例. 2008;11:15-28.
30. 정종영, 한경환. 한국에 흔한 피부질환. 서울:도서출판 엠디월드. 2009:77, 286-7, 349, 363.
31. 大塚敬節. 金匱要略講話. 서울:의방출판사. 2003:249, 290-1.
32. 안성구, 이승헌. 핵심피부과학. 서울:고려의학. 1999:37.